

석유화학 호황 2005년에도 지속!

CJ투자증권, 석유화학 가격상승세 뚜렷 ... LG·한화 호조로 전환

CJ투자증권은 석유화학과 정유 관련종목들의 주가가 지난주부터 뚜렷한 반등세를 보였으며 추가적 수익률 개선도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CJ투자증권 이희철 애널리스트는 해외 관련기업의 주가 강세에서 나타나고 있는 외부변수의 호전과 상반기에 양호한 시황이 이어질 것이라는 예상을 감안하면 주가가 추가 상승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주요 화학기업의 2005년 상반기 영업실적은 당초 예상보다 양호한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예측했다.

석유화학제품 가격이 연초 이후 뚜렷한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고 2/4분기에 국내외 대형 석유화학기업들의 정기보수가 집중돼 중국을 중심으로 양호한 시황이 지속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호남석유화학에 대해 롯데대산유화와 KP케미칼 등의 인수로 사업 포트폴리오가 더욱 강화돼 긍정적 시각을 유지한다며 주가가 기업가치에 수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한화석유화학은 가성소다 등의 가격상승과 PVC 등의 시황 호전으로 상반기에 견조한 경영실적이 예상된다며 기존의 <매수> 투자의견과 목표주가 1만3500원을 유지했다.

아울러 LG화학에 대한 시각이 다소 호전되고 있는 것은 내수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영업실적의 반등을 예상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화학저널 2005/02/24>